

陳映真 초기 소설에서 좌절과 절망의 의미

— 서사구조분석을 중심으로

이현복*

<目 次>

1. 서
2. 서사구조분석의 의의
3. 천잉전 초기 소설의 좌절의 서사구조
4. 국민성 개조 서사와의 연관성과 차이
5. 결

1. 서

천잉전(陳映眞)은 타이완의 대표적 현실주의 작가이자 좌익작가이다. 좌익 성향으로 7년간의 옥고를 치르면서도 자신의 신념을 바꾸지 않았고, 출소 후 정치와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타이완 사회의 민주화에 공헌하였다. 또한 타이완 독립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는 상황에서, 대륙과 타이완의 일체성을 확인하고 자신의 민족주의적

* 강원대학교 인문대학 인문학부 중어중문학전공 조교수,
scentoftree@kangwon.ac.kr

신념을 지켜나갔다. 그는 민족과 사회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며 정치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전후 타이완 사회가 나아가야 할 출로를 모색하려 하였다.

주체의 정립과 실천의 전환이 요구되던 타이완에서 그는 처음에는 학생의 신분으로 사회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1959년 대학생 시절 「포장마차麵攤」¹⁾를 발표한 이래, 그는 타이완 사회를 살아가는 민중들의 삶과 그들의 정신적 상처와 고민을 문학 속에 담아내었다. 그는 문학창작을 통해 단순히 당대 타이완의 사회적 현상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에게 사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하고 사람들의 실천을 촉발하려고 했다. 이러한 점에서 문학은 그에게 자족적 실천이 아니라 사회적 실천의 수단이었으며, 소극적 발화가 아니라 적극적 행동이었다.

그러나 「포장마차」 이후 수감되어 정치적 좌절을 경험하기까지 그의 초기 작품은 시대의 좌절과 허무를 드러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의 초기작에서 사람들은 빈곤한 삶을 벗어나지 못한 채 무기력과 무묘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그려진다. 게다가 그 사회는 도덕적 타락이 만연해 있었다. 그것을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은 좌절되고, 실천의 주체들은 타락하거나 죽음에 이르기도 했다. 이는 당시 타이완 사회의 좌절과 허무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었다.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는 입장인 천팡밍(陳芳明)은 이 시기 천잉전이 시대의 좌절과 허무를 벗어나지 못하고, 어떠한 출구도 찾지 못한 것 같다고 말한다. 그는 천잉전이 초기 작품들에서 역사의 매서운 채찍질을 견디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폐쇄된 정치적 환경과 그 속에서의 고민을 보여주었다고 평한다.²⁾ 천팡밍은 일본이 지나간 자리를 대신 차지한 국민당이 타이완에서 강압적 통치를 확장한 것을 재식민으로 규정했다.³⁾

1) 「포장마차」는 병든 아들을 두고 있는 노점상 부부와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젊은 경관의 이야기이다. 노점상 여자와 경관 사이의 미묘한 감정적 긴장이 눈에 띈다. 陳映眞, 「麵攤」, 『我的弟弟康雄·陳映眞小說集1』(台北: 洪範書店, 2001).

2) 陳芳明 저, 고운선 외 역, 『타이완신문학사』(서울: 학고방, 2019), 479-480쪽 참조.

그의 관점에서 이 시기 타이완의 좌절과 허무는 이러한 재식민화의 결과였다. 그리고 이것은 천잉전의 좌절과 허무의 이유이기도 했다. 전후 일본이 물러가면서 열린 공간에서 타이완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스스로 근대를 만들어 갈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일본의 자리를 대신해 들어온 국민당은 이러한 기회를 앗아가 버렸다. 전후 타이완 인들은 스스로 정체성을 모색할 수도 없었고, 스스로 발전을 도모할 수도 없었다. 타이완인들은 국민당의 이념과 질서를 받아들이고서야, 재식민이 이루어지던 타이완 사회에서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천광밍은 이 시기 타이완이 스스로를 정립하고 발전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재식민의 질서와 이념을 거부하는 이들의 사상적 투쟁은 실제 정치의 강력한 위용과 위협 앞에서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았다. 천잉전 작품 속 이상의 좌절은 바로 이것을 현상한 것으로 천광밍은 이해했다.

그러나 그와는 다른 입장을 가진 논자들은 천잉전의 이념과 정치적 지향성을 바탕으로 그를 좌익이자 친중국계 작가로 규정하면서 그가 초기 소설에서 허무를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로 극복했다고 이야기한다. 자오강(趙剛)은 천잉전의 초기작 「사과나무蘋果樹」⁴⁾가 비록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은 절망의 극복과 희망의 제시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천잉전이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사과를 희망의 상징으로

3) 천광밍은 『타이완신문학사』(陳芳明 著 고운선 외 역, 서울, 학고방, 2019)에서 신문학으로 명명한 타이완의 현대문학사를 정치적 기준에 따라 일제강점기, 국민당의 재식민기, 계엄 해제 후 포스트식민시기로 규정했다. 그는 이러한 역사적 단계에서 탈중심으로 향해가는 정치적 과정의 틈 속에서 타이완의 문학 역시 탈중심, 다원화의 길로 나아갔다고 보았다.

4) 작품은 무료한 일상이 반복되는 빈민가에 본래 미술가를 지망했으나, 학력 부족으로 법과를 가게 된, 실의한 청년 린우즈林武治가 오는 것으로 시작된다. 빈민가의 사람들은 이 낯선 인물에 흥미를 가지나, 그것도 잠시, 가난하고 무료한 일상을 반복한다. 어느 날 린우즈는 사과나무에 대해 빈민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나막신을 만드는 료오성 廖生財의 미친 아내만이 린우즈의 사과나무에 반응한다. 린우즈는 그런 료오성차이의 미친 아내와 관계한다. 린우즈가 자신의 가족사를 이야기하고 같이 밤을 보낸 다음날, 린우즈의 아내는 죽은 채 발견되고 린우즈는 경찰로 잡혀 간다. 그리고 마을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일상을 반복한다. 린우즈가 말한 사과나무는 흔히 보이는 茄萼나무였다. 陳映眞, 「蘋果樹」, 『我的弟弟康雄·陳映眞小說集1』(台北: 洪範書店, 2001).

제시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여기서 사과는 사회주의와 기독교의 이상을 말하는 것이다. 그는 더 나아가 작품 속에 등장하는 전지적 화자 ‘나’를 ‘설서인(說書者 혹은 說書人)⁵⁾’으로 지칭하고, 이 설서인 ‘나’가 사건의 이후에도 존재하고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미완인 자이기 때문에, 그의 존재를 곧 희망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타이완의 주체인 ‘나’의 존속이 사과와 관련된 복음, 곧 그들의 지향과 이상의 존속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타이완에서의 주체가 누구이며, 타이완의 마주한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복음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이해해 볼 수 있다.⁶⁾ 자오강은 천잉전이 각성한 주체와 그 주체가 제시한 이상이 타이완에서 지속될 것이라는 데서 절망 속 희망을 이야기했다고 본 것이다.

한편 류쿠이(劉奎)는 천잉전의 理想主義는 좌절 속에서 실패로 귀결되지만, 이 좌절이 그가 미학적 바탕으로 삼고 있던 낭만주의적 좌절과 죽음에 머물지 않고, 역사성을 잃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구체성을 획득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여기서 역사적 구체성이란 대륙의 사회주의운동을 지칭한다. 류쿠이는 천잉전이 마르크스주의와 루쉰(魯迅) 등 좌익비판전통을 자신의 미학적 바탕과 결합하였기에 뒷골목의 타이완인들이 5,60년대의 백색테러에 저항하고 출로를 찾을 수 있었다고 보았다.⁷⁾

탄권(譚君)은 「‘이상주의’ 사상 방법의 초월성 비판‘理想主義’思想方法的跨越性批判」에서 천잉전의 이상주의를 1960년대와 1980년대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그는 1960년대 천잉전이 빈곤하고 우매한 중국을 자신의 중국으로 보고 이러한 빈곤한 중국을 개조하겠다는 생각으로 빈곤한 중국에 대한 인식, 종교, 마르크스주의를 결합하여 이상주의를 꿈꾸었다고 보았다. 또한, 천잉전이 타이완과 대륙을 동일시하면서 빈곤을 극복할 수 있는 길로 문화대혁명에 집중하기도 했다고 말한다.⁸⁾

5) 본래 說書는 宋代부터 유행한 연행 형식이다. 구두로 이야기를 하거나 고전 소설을 읽어 준다. 이들은 이야기에 전지적 화자처럼 개입하기도 한다.

6) 趙剛, 「「蘋果樹」: 書寫是爲了克服絕望」, 『文藝爭鳴』 2017年 第2期, 33쪽.

7) 劉奎, 「陳映真與理想主義之困」, 『藝術評論』 2017年 第3期 참조.

8) 譚君, 「“理想主義”思想方法的跨越性批判」, 『蘇州教育學院學報』 第36卷 第5期(2019.10) 참조.

이들은 공통적으로 천잉전의 소설이 1960년대 이상의 좌절에 따른 허무주의를 보여주면서도, 허무에 머물지 않는 희망 또한 제시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천잉전이 희망을 제시했다는 까닭은 마르크스주의와 마오쩌둥식 사회주의와 연결된다. 그들은 모두 이 시기 천잉전을 완성된 마르크스주의자 혹은 사회주의자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이때는 일본의 강압적 통치를 이제 막 경과하고 그들을 대신해 지배의 중심을 차지한 국민당이 반공을 국시로 정치적, 사상적 탄압을 강화하던 시기였다. 비록 천잉전이 우연히 아버지가 숨겨두고 있던 루쉰을 읽고 대학 시절 마르크스주의 관련 저작을 보았다⁹⁾ 하더라도 이 시기부터 그를 완성된 사회주의자나 민족주의자로 확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역사적 변화 속에서 천잉전이 자신의 사상을 모색하고 그에 따라 세상을 바꾸려고 실천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당시의 역사적 과정 속에서 자신의 사상을 형성하면서 실천의 방법을 찾아간 것이지 중국의 결과로서 어떤 이상을 제시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들은 작품에서 주체가 제시하는 이상에만 집중하여 분석하고 그것을 희망의 제시로 보고 싶어 하기에 천잉전을 완성된 사회주의자로 보려고 한다. 이것은 그들이 오늘날의 시점과 입장에서 당시를 재단하려 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상이나 주의는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와 그것을 해결하려는 실천의 과정에서 주체가 선택하는 수단이자 방법이라고 할 수

9) 천잉전은 중학교 때 집안 서재에서 생부가 감히 태워버리지 못한 루쉰의 소설집 『吶喊』을 발견한다. 그는 이후 이 소설집이 청소년기를 버티어나가는 동반자같은 것으로 이야기했다. 특히, 유급한 여름, 그는 『吶喊』을 자세히 읽음으로써, 유급으로 인한 열패감을 잊을 수 있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 투르게네프, 체홉, 곤샤로프, 톨스토이 등을 읽을 때, 『吶喊』이 있었기에 그 맛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에게 이것은 뜻밖의 일이기도 했다. 대학에 들어간 후에 그는 아버지의 서가에서 가져온 쿠리야가와 하쿠순(麿川白村)의 『苦悶的象徴』(고민의 상징), 작자 미상의 『西洋文學十二講』 등을 읽었고, 台北의 중고서점가에서 구한 아이쓰치(艾思奇)의 『大衆哲學』, 『聯共黨史』(소련공산당사), 『政治經濟學教程』, 스노우의 『中國的紅星』(중국의 붉은 별, 일문판), 『馬列選集』(마르크스레닌선집, 영문판), 항일전쟁 시기 출판된 毛澤東의 팜플렛 등을 읽었다. 그는 이것이 그 자신을 변화시키고 만들었다고 말한다. 陳映眞, 「後街」, 『我的弟弟康雄·陳映眞小說集1』(台北: 洪範書店, 2001), 15-17쪽.

있다. 이상은 그것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환경과 그 속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체의 실천이 없을 때 실현 불가능하고 무의미하다. 때문에 문제제기, 실천, 이상을 하나로 연결해서 사고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자신의 입장, 특히 정치적 입장에서 논하려는 자는 연결된 전체의 과정을 보지 않고, 결과로서 이상과 주의만을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 이처럼 과정으로 파악하지 않고 이상에만 집중한다면, 이상이나 주의와 연결된 실천의 과정을 지워버리고 이러한 시선을 조직하는 이들의 시선으로 문제를 보게 된다. 그의 작품 활동을 실천의 일환으로 본다면, 이를 통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인가에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떠한 상황에서 왜 그것을 선택했는가고, 그것을 위해 어떠한 실천을 전개했는가, 그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이다.

전후 타이완에 잠시 열렸던 정치적 공간은 국민당의 집권으로 인해, 타이완인들이 스스로 주체가 될 수 있는 기회로 전환되지 못하고 닫혀버리고 말았다. 스스로를 주체로 정립하고자 했던 수많은 노력은 무산되었고, 지배의 중심에 들어선 국민당은 그들에게 수많은 레테르를 붙여 그들의 실천을 가로막았다. 당시 이러한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이들의 시도로부터 그들이 어떻게 새로이 주체를 정립하고 그 주체가 무엇을 실천하고자 했는지, 나아가 그 실천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새로운 지배질서가 강요되던 시점에서 천잉전의 문학적 실천은 타이완 사회 주체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그 주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검토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문학 속 확인과 실천은 결국 강요되는 질서와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과도 연관된다. 천잉전은 자신의 작품 속에서 이러한 확인과 실천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실천을 촉발할 수 있는 새로운 의미를 구축하고자 한 것은 아닐까? 당시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시대적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서 자신의 실천을 기획하고 도모했던 것은 아닐까? 설령 그를 마르크스주의나 마오주의자로 규정하고 그래서 그가 제시한 이상을 사회주의나 대륙 중국으로 볼 수 있다하더라도, 우리는 초점

을 선언적으로 제기되는 이상이 아닌, 그것을 찾아가는 주체의 행동과 그것이 만들어 내는 의미에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작품 속 주체 찾아가기와 그들의 실천에 대한 표현은 문학적 실천과 연관된 사회적 실천과 연결되고, 당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이 같은 실천은 오늘날 실천에 대한 모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희망으로서 어떤 이념이나 종착지를 제시하는 것에 머물지 않는 천잉전의 문학적 실천을 통해 주체의 정립과 실천(행위)의 제시라는 측면에서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는 당시 천잉전 소설 속 특정한 서사구조에 대한 탐색을 통해서 이를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투옥 전 그의 작품 속에는 각성한 이와 우매한 대중, 개혁과 좌절이 교차하는 특정한 서사의 작품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본고는 이들 작품을 대상으로 당시의 타이완 사회에서 제기되었던 주체 확립과 실천의 문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서사구조분석의 의의

소설은 이야기를 통해 의미를 구축하고 전달한다. 소설 속 이야기의 구조가 의미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설을 쓴다는 행위는 서사구조를 통해 이야기를 제시하고 그것을 통해 어떤 의미를 구축한다고 할 수 있다. 천잉전의 소설 창작과 글쓰기라는 문학적 실천을 사회적 실천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것 역시 소설의 서사가 갖는 이러한 가능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의미 구축으로서의 서사구조는 구조주의 비평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분석의 도구이기도 하다. 주지하다시피, 구조주의에서는 인간의 언어가 여러 개별적인 언어현상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언어구조로부터 파생되어 나온다는 언어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여러 현상을 해

석하고 비평한다. 이 경우 다양한 소설 작품들과 그 안의 다양한 문학적 현상은 그 근본적인 서사구조로부터 파생, 변형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개별 작품들은 동일한 서사구조로부터 파생되며 개별 작품들이 보여주는 유사하거나 동일한 서사구조는 또한 동일한 의미를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언어가 구조를 바탕으로 형성되어 어떤 의미를 전하듯, 소설 역시 서사구조를 바탕으로 어떤 의미를 형성하며, 이는 독서의 과정을 통해 청자와 독자에게 전해진다. 작가는 서사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의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독서 과정 속에서 수신자에게도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 같은 의미의 전달과 이해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이해할 수 있는 공통의 약속을 갖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곧 서사구조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생득적인 부분도 있지만, 전달자인 작가에 의해 구축되어 수신자인 독자에게 전해짐으로써 그들 사이에서 구축되는 것이기도 하다. 전달자인 작가는 자신의 의미를 구축하거나 전달할 수 있는 구조를 선택해 발화한다.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의미를 전하기 위해 특정한 구조를 선택하여 문장을 완성하듯, 작가는 의미를 구축하고자 특정한 환경 속에서 특정한 서사구조를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작가나 발신자의 능동적 실천은 이 같은 선택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작가와 독자, 혹은 수신자와 발신자는 동일한 문화 안에서 같은 구조를 공유하기에 생득적으로 구조에서 구축되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이 같은 공유는 선택과 전달의 상황을 넘어 또 다른 서사의 구축, 의미의 구축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를 토대로 보자면, 천잉전은 전후 주체 부재의 타이완이라는 상황에서 타이완인들이 공유하는 문제의식을 소설화하여 표현하고자 했는데, 이는 곧 독특한 서사구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그는 일정한 서사구조를 통해 각각의 문학적 현상을 만들어 내되 그 안에 공통된 의미를 구축한 것이다. 독자는 이러한 구조와 그것을 통해 구축된 의미를 전달받고 이해하면서, 그 스스로도 그러한 구조를 내재화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천잉전과 독자는 각각 사회적 실천의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홍성(鄭鴻生)은 1960년대를 타이완의 문예부흥의 시대로 규정한다. 이 시대에 타이완 사회에 모습을 드러낸 새로운 세대는 대륙에서 넘어온 문예잡지와 타이완에서 새로 나온 잡지들을 읽었는데, 그 속에는 1920,30년대 대륙 중국의 문학작품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이들 세대는 자신의 언어로 중국어를 취하게 된다. 정홍성은 일본어와 일본어 문학 환경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중국어와 중국어문학을 접한 세대가 바로 천잉전 세대라고 보았다. 이것은 이들 세대가 자기 정체성을 어디에서 확인했던가를 보여준다. 정홍성은 또한 이들 세대가 사상방면에서 논리실증주의와 실존주의의 영향을 받았고, 전 세계를 휩쓸던 청년들의 저항 문화의 세례를 받았다는 점을 환기시키고 있다. 언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당시의 청년들은 정체성의 뿌리를 중국에 두면서 사상의 세례 속에서 기존의 관습과 사상에 대한 저항을 갖게 된 것이다.¹⁰⁾

1959년, 대학생이던 시절 「포장마차」로 창작을 시작한 천잉전은 일련의 유사한 구조의 소설 작품을 선보였다. 천잉전의 이 시기 소설은 좌절과 죽음이라는 공통점을 지닌 작품이 많은데, 비록 이들 작품이 개별적 문학현상으로서 각자 다른 개성적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것들은 공통된 어떤 의미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의미의 구축을 통해 그가 실천하고자 했던 문학적 실천의 첫 의미를 읽어낼 수 있다. 의미의 구축과 전달, 그리고 독서와 감상을 통해 형성되는 공통된 이해와 실천 즉 국민당의 지배체제에 대한 저항으로의 연결이 죽음과 좌절의 양상을 띤 천잉전 초기 소설에서도 찾아진다.

주원빈(朱文斌)과 웨한페이(岳寒飛)는 「허무 속의 존재在虛無中存在」에서 천잉전의 허무는 저항적인 의미를 띠는 것으로, 좌절 속에서 생명을 찾아가려는 것이라 말한 바 있다.¹¹⁾ 실제 천잉전은 「뒷골목後街」에서

10) 鄭鴻生, 「陳映眞與台灣的六十年代」, 『陳映眞思想與文學』下(台北: 台灣社會研究, 2011.11) 참조.

11) 朱文斌·岳寒飛, 「在虛無中存在」, 『文藝爭鳴』2017年 03期(2017.3.25) 참조.

“그는 꿈 속 도처에 있는 홍기紅旗와 현실 속 공포와 절망 사이의 거대한 모순으로부터 늘 애매한 이상을 품고 있다가 끝내 분분히 좌절하여 자살하고 시들어 버리는 인물을 만들어, 그 자신의 깊은 곳에 내재된 엄중한 절망과 자기파괴를 피하려고 하였다”¹²⁾라고 말한다. 여기서 3인칭으로 제시된 ‘그’는 천잉전 자신을 의미한다. 그는 좌절의 서사를 통해 엄중한 사회적 현실 속에서의 좌절을 그대로 보여주면서도, 오히려 이러한 인물과 사건의 구축으로부터 자신을 포함한 타이완 사회의 생존을 도모하려고 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좌절과 절망의 서사는 자신을 포함한 사람들에게 그 좌절의 의미를 전하면서 실천을 통한 출로를 모색하려는 것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다.

구조주의 분석은 개별적인 현상은 근본적인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구조적 결정성을 토대로 하고 있지만, 본고에서 살피는 서사구조에 대한 분석과 이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론으로서의 구조주의는 이 같은 결정정보다는 주체의 행위가 만들어내는 의미의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천잉전 초기 창작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천잉전의 창작은 유사한 서사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는데 이러한 문학적 실천은 사회적 실천인 개혁의 모색과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개혁이란 결국은 타이완인의 의지와 다르게 지배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이 이루어낸 질서로 편입되는 것에 대한 저항이라는 점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천잉전의 시도가 새로운 주체와 이들을 새로운 중심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것과 연관됨을 살피고자 한다. 즉, 그는 의미를 구축하여 전달함으로써 주체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들의 행위를 촉발하는 이데올로기적 저항에 나서기 위해, 이에 상응하는 서사구조를 선택, 구축한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다.

12) 陳映眞, 「後街」, 『我的弟弟康雄·陳映眞小說集1』(台北: 洪範書店, 2001), 18쪽.

3. 천잉전 초기 소설의 좌절의 서사구조

천잉전은 창작 초기에 주체의 죽음과 좌절로 끝을 맺고 있는 작품을 여럿 발표한다. 「나의 동생 강승我的弟弟康雄」¹³⁾, 「고향故鄉」¹⁴⁾, 「시골 선생님 鄉村的老師」¹⁵⁾, 「사자死者」¹⁶⁾, 「가룟 유다 이야기 加略人猶大的故

- 13) 「나의 동생 강승」은 강승(康雄)의 누나가 화자이다. 누나는 동생의 사후, 동생에 관한 일기를 쓰게 됐음을 밝힌다. 동생의 죽음은 단순히 일기를 쓰게 되었다는 것에 있지는 않다. 동생의 죽음으로 누나는 동생만큼 이상주의자였지만 능력 없던 남자친구와 결별하고 부유한 집으로 시집을 가게 된다. 그런데 이 세속적인 결정은 아버지를 안심시킨다. 또 한 때 이상이었던 아버지가 세속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 陳映眞, 「我的弟弟康雄」, 『我的弟弟康雄·陳映眞小說集1』(台北: 洪範書店, 2001).
- 14) 「고향」에서 화자 '나'는 아버지의 보험금을 다 써버리고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았던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곳에는 한때 그의 영웅이었던 형이 살고 있다. 일본에서 의학을 공부하다 돌아온 형은 고향 사람들을 바꾸고 싶어 하지만 실패한다. 게다가 부친 사후 빚을 청산하면서 집안은 파산하고 만다. 형은 동생인 나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나는 외할머니집에 가서 살게 된다. 돌아간 고향에서 형은 그가 바꾸고자 했던 사람들보다 더 타락해 방탕한 악마가 되어 있었다. 그와 살던 술집 작부 출신의 형수는 형이 동생을 생각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나는 고향을 떠난다. 나는 돌아갈 집이 없음을 한탄한다. 陳映眞, 「故鄉」, 『我的弟弟康雄·陳映眞小說集1』(台北: 洪範書店, 2001).
- 15) 청년 우진상(吳錦翔)은 전쟁 후 1년이 지난 뒤 기적적으로 돌아온다. 광복의 환희에 들떠 있던 사람들이 무감각해질 때쯤 그의 생환은 사람들을 흥분시켰다. 살아 돌아온 데다 교사까지 된 인텔리 우진상은 어머니의 자랑거리였다. 우진상은 시골 선생님이로서 전후 아이들을 교육하여 바꾸다가 전후 사람들과 그들의 삶을 바꾸기 시작한다. 그러나 대륙으로부터 다시금 전쟁의 기운이 전해진다. 국민당이 타이완으로 옮겨오고 이를 따라온 군인들의 모습은 오래된 중국과 전쟁의 트라우마를 자극한다. 군대를 가는 청년들을 축하해주는 마을 사람들을 보며, 우진상은 술에 취해 남양 어딘가에서 인육을 먹으며 버텼던 일을 이야기한다. 그 이후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변한다. 최악의 토벌은 그를 치유하지 못하고, 최악해진 그는 한 달 반만에 죽고 만다. 陳映眞, 「鄉村的老師」, 『我的弟弟康雄·陳映眞小說集1』(台北: 洪範書店, 2001).
- 16) 린중승(林鐘雄)은 외할아버지 생파보(生發伯)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외가인 타오위안(桃源)으로 간다. 전후 지방을 돌며 영화를 상영하는 사업으로 돈을 벌던 린중승은 입대 전에 외할아버지의 장례에 참석함으로써 이 집안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한다. 원래 그는 어머니의 양자였기에 이 집안과는 혈연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 외할아버지는 가문의 저주를 극복하는 것은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다고 생각해, 자식들에게 늘 이것을 경계해

事」¹⁷⁾, 「사과나무」 등이 그렇다. 작품에서는 이상을 가지고 있거나 각성한 인물이 나온다. 그리고 무기력하고 나태한 대중이 있다. 그들 중 상당수는 낡은 습속에 따라 살아가고 있으며, 우매하며, 미신에 사로잡혀 있다. 이런 사람들의 일상과 사회에는 이상을 가진 자가 도래한다. 초기 작품들에 등장하는 이상을 가진 자는 「나의 동생 강승」의 강승, 「시골선생님」의 우진상(吳錦翔), 「고향」의 형, 「가룟 유다 이야기」의 가룟 유다, 「사과나무」의 린우즈(林武治)와 같은 이들이다. 개중에는 범상한 인물도 있지만, 영웅적 인물이라고 보기에는 무언가 부족하다. 그들은 대부분 지식인으로서 우매한 대중과는 다른 듯하지만 평범한 이들과 같은 무리다. 다만 도덕과 정신적 계몽의 측면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고, 평범한 이들의 도덕과 정신보다는 더 나은 단계라고 볼 수 있기에 그들을 깨어 있는 인간, 각성한 인간으로 지칭할 수는 있다.

깨어 있는 인간이나 평범한 인간이나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은 물질적

왔다. 성과보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으나 깨어나 며느리, 즉 린중승의 외숙모에게 패덕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그의 아버지도 죽었다 깨어나 자신의 부인에게 패덕하지 말 것을 유언으로 남겼고, 그의 어머니는 이를 지켰다. 그래서 성과보 자신도 죽는 마당에 며느리에게 이러한 유언을 남기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외숙모가 말했듯, 착하게 살면 끝이 좋을 것이라는 말과 달리 성과보의 아들들은 효를 다하고 성실하고 죄없이 살았지만,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말았다. 성과보는 온 마을에 퍼져 있는 윤리적 타락을 경계했지만, 유언을 들은 며느리, 린중승의 외숙모도 마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남몰래 애인을 두고 있었다. 어쨌든 린중승은 외할아버지의 장례로 자신이 할 도리는 다하고 이 가문과는 연을 끊을 수 있었다. 그는 이제 변화된 사회에서 계획한 물질적 생활을 영위하면 되었다. 성과보가 경계한 마을과 집안사람들은 떠들썩하니 곡을 하면서 집안의 생기를 불어넣었지만, 자자는 이제 출고 뭉뚱한 여행을 시작해야 했다. 陳映眞, 「死者」, 『我的弟弟康雄·陳映眞小說集1』(台北: 洪範書店, 2001).

- 17) 가룟 유다는 시오니스트들의 집회에서 제사장들이 결국은 로마 세력을 제거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한다. 그는 제사장의 딸인 헤로디와 도망간다. 그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를 흠모하고 그의 제자가 된다.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수에 환호하던 유대인들을 보며, 희망을 갖는다. 그러나 예수는 유다가 기대한 권력의 탈취에는 관심 없고, 예수를 환호하던 대중이 흥분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에 실망한다. 실망한 그는 예수를 팔아버린다. 예수의 죽음 앞에서 그는 진짜 권력은 인간의 권력이 아니라 하늘의 것임을 깨닫는다. 陳映眞, 「加略人猶大的故事」, 『我的弟弟康雄·陳映眞小說集1』(台北: 洪範書店, 2001).

욕망이 지배하는 사회이다. 작품 속 현실은 세속적인 경제적 부나 정치 권력을 얻으려 하는 이들과 그것을 욕망하지만 그것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인간들이 살아가는 곳이다. 평범한 사람들은 거창한 희망이나 이상을 그리지 않으며, 그저 무료한 일상에 파문이 던져지기만을 바랄 뿐이다.¹⁸⁾ 이러한 사회에 이상을 가지고 도래한 인물은 다른 이들보다 우월한 존재가 아니다. 그들의 이상은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 사회와 맞지 않다. 오히려 사회 부적응자로 보이며 그런 의미에서 모자라 보이기까지 한다. 그들은 무료하지만 평범한 물질적 삶에 도래해 자신들의 이상을 가지고 사회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의 시도는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거절당한다. 그들은 이 거절로 인해 좌절하게 되는데, 좌절은 죽음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Kang은 무정부주의자였다. 물질적 가치가 우선시 되는 사회에서 그의 무정부주의는 사람들의 삶을 구원할 힘이 없다. 그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지 못하고 좌절과 실의 속에 결국 자살을 택한다. 우진상은 전장에서 돌아와 전후 타이완의 향촌을 개혁하려고 한다. 어린 학생들부터 시작해 향촌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바꾸려 하지만 좌절하고 죽음을 맞이한다. 「고향」에서 형은 일본에서 돌아와 기독교적 이상을 실천하고자 한다. 타락한 지역을 종교의 힘을 빌려 개혁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 사망 후 아버지의 부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형은 이상을 잃고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버린다. 형은 이상의 상실을 이유로 자살하지는 않지만 타락하여 마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도박, 매춘과 같은 암흑의 삶을 살아간다. 더 나아가 그는 그러한 악행의 주모자격으로 변모한다. 이상을 등진 그는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되 이상적 ‘인간’으로서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이

18) 이렇게 좁고, 생기라고는 볼 수 없는 지역에 사람들은 하나하나 모두 매 순간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었다(중략). 싸움, 욕, 살인 같은 것, 그렇지 않으면 계집아이라도 새로 태어나는 것 같은 그런 것들.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 있다는 것을 잊거나 자기가 결국은 살아 있다고 기억하게 하는 일, 그런 것들이 모두 그들이 기대하는 것이었다. 陳映眞, 「蘋果樹」, 『我的弟弟康雄·陳映眞小說集1』(台北: 洪範書店, 2001), 137쪽.

다. 「사자」의 외할아버지 성과보(生發伯)는 저승길에서 돌아와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삶을 살지 말 것을 유언으로 남긴다. 친자식이든 혼인이거나 입양 관계를 맺은 사람이든, 자기 가문의 사람들은 동물과 다를 바 없이 타락한 마을사람들이나 혈족들과는 다른 삶을 살라는 경계를 전한다. 그에게 이것은 가문의 피에 내재된 저주를 끊어낼 길인 것 같았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유언과 단속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에 길들여진 사람들 속에서는 무의미한 것이었다. 며느리는 이미 애인을 두고 있었고, 손녀는 도시에서 몸을 팔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성과보의 유언은 좌절된 것이다. 가룟 유다는 유대인 사회를 구원할 혁명을 꿈꾸고 예수를 통해 이를 이룰 것을 기대하지만, 결국 스승 예수를 팔고 자살한다. 사과나무의 린우즈(林武治)는 죽지 않지만, 그의 이상을 공유한 유일한 인간인 라오성차이(廖生財)의 미친 부인은 급사한다. 이처럼 이상을 가지고 개혁하려하거나 그것을 깨달은 인간들은 죽거나 타락하고 만다. 천잉전의 초기 소설에서 이처럼 ‘깨어있는 인간은 우매한 대중 속에 도래하여 그들을 바꾸려 하지만, ‘거부당하고’, ‘죽음을 맞거나 타락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것이 그의 초기 소설이 보여주는 기본적인 서사구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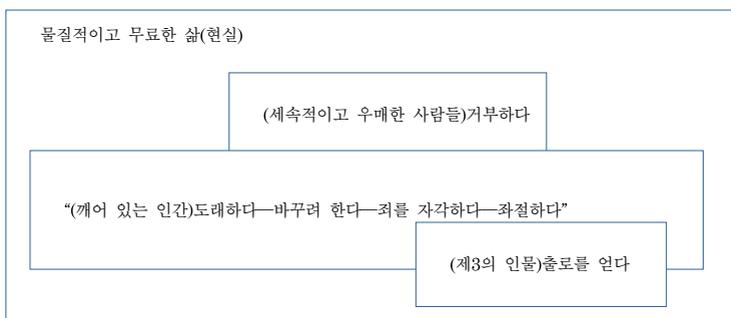
그런데, 이들 깨어있는 인물의 좌절은 화자가 속한 우매한 대중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만 보이지는 않는다. 물론 그들의 이상은 대중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상에 따른 실천이 실패하기 때문에, 대중들의 수용 거부 역시 그들의 좌절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물의 죽음과 좌절은 각성한 이들의 이상에 내재한 결함과 각성한 이 자신의 도덕적, 이념적 타락에 대한 각성 때문이기도 하다. 캉승의 이상은 물질적 가치가 우선 시되고, 정치적 중심이 있어야 하는 사회 현실에 부적합하고 무기력하다. 그는 결국 나이든 여인과의 정사로 동정을 잃기까지 한다. 사춘기에 들어선 그는 동물적인 육욕의 유혹 앞에 무너지고 만 것이다. 우진샹은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아이들과 사람들은 무심하다. 개혁에 대한 그의 이상과 희망을 거부한 마을 사람들과 아이들이 그를 좌절케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죽음까지 이르는 극한의 절망을 촉발한 것은 자신이 전장에서 저지른 반인륜적 식인행위에 대한 죄

책감이다. 형은 죽은 아버지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타락한다. 무슨 일이 그 사이에 있었는지, 어떠한 심적인 변화가 있었는지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고의로 자기 자신을 타락시키고 망가뜨린 것은 사실이다. 유다는 종교적 이상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서 제사장 등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로마인과 다를 바 없는 지배자로 생각한다. 그는 이러한 지배자들을 전복시키고 민족과 민중을 해방시킬 이가 예수라 생각해 추종한다. 그러나 그는 애초에 예수가 로마와 유대인 제사장이 갖고 있는 권력을 탈취하여 유대인을 해방시키고, 로마인과 유대인 제사장들이 하던 방식대로 지배자들 제압할 것을 기대했다. 제사장들의 세속적인 허위와 권력을 뒤집으려 했지만, 마찬가지로 세속적인 권력을 통해서 이를 이루려고 했던 것이다. 그는 세상을 변화시킬 정치적 힘을 탈취하기만을 바랐다. 게다가 예수를 대하는 균중의 태도 역시 어제와 오늘이 달랐고, 그는 이에 실망한다. 그러나 그를 결정적으로 타락시킨 원인은 그의 내면에 도사린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야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거부당하’는, 좌절하는 주체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죄를 자각한다.

그런데 이러한 죽음이나 좌절은 아이러니하게도 또 다른 이가 세속적인 삶을 이어가는 계기가 된다. 어떻게 보면, Kangshui가 죽음으로써 누나와 아버지는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현실에서 살아갈 길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Kangshui가 죽자 누나는 무정부주의자 동생과 이상에 빠진 가난한 미대생 옛 남자친구를 버리고 부유한 집안의 사람과 결혼한다. 과거 이상가였던 아버지는 딸의 이런 결혼에 오히려 안심한다. 심지어 부유한 사돈 집안의 힘을 빌려 3류 대학의 철학과 교수로서 살아가게 된다. 「고향」의 형은 타락해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술집 작부 출신의 여자와 살아가다. 장례를 치르고 빛을 청산한 후 마취된 것처럼 같은 잠에 빠져 있던 동생이 깨어나, 자신의 상황을 자각하고 울음을 터뜨리자 형은 사정없이 동생을 구타한다. 형은 동생에게 폭력을 퍼붓고 내쫓지만 오히려 이 같은 형의 좌절과 타락 덕분에 동생은 타락한 마을에서 벗어나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자」에서 린중송(林鐘雄)은 외할아버지 성파보의 장래를 끝으로 이제 이 집안과는 연을 끊고 훌가분하게 계획했던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사과나무」의 경우, 주인공 린우즈는 죽지 않지만 그를 이해하고 그와 관계한 미친 여자는 죽는다. 미친 여자는 물리적 죽음을 맞이하지만 린우즈가 말한 희망인 사과나무를 유일하게 이해하고 믿은 인물이자 새롭게 태어난 인물로 사과나무에 대한 믿음이 끝나지 않는 이상 그녀의 삶은 지속되는 것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작품인 「가룟 유다 이야기」 속 유다는 스스로 목을 매지만, 예수는 살아난다. 이들 작품 속에서 누군가의 ‘좌절’로 인해 누군가는 세속적인 사회에서 나름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출로를 얻는다. 앞서 살폈던 주원빈과 웨한페이가 「허무 속의 존재」에서 말한 저항적 의미를 띠는 허무와 좌절 속 생명을 찾아가려는 움직임은 이들 제3의 인물들의 각성 혹은 삶의 연속과도 연관시킬 수 있다.

이들 작품은 물질 우선적이고 무료한 삶에서 작중인물들의 행동이 유사한 패턴으로 구조화되고 유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그리고 있다. 작품에서 인물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평범하지만 깨어 있는 인간, 세속적이고 우매한 사람들, 그리고 제3의 인물들이다. 그들 각각의 행동을 살펴보면, 먼저 평범하지만 깨어 있는 인간은 삶을 바꾸려고 하지만, 거부당하고, 자신의 원죄를 자각하고 이로 인해 죽음을 맞거나 타락한다. 세속적이고 우매한 사람들은 전자에게서 충격을 받는다. 그러나 그것은 무료한 일상의 작은 파도일 뿐이다. 그들은 결국 변화를 거부하고, 여전히 무료한 일상을 살아간다. 제3자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이들이다. 다만 첫 번째 인물의 좌절을 통해 오히려 어떤 이득을 보는 이들이다. 첫 번째 인물들의 좌절은 죽음으로 이어지지만, 제3자들은 첫 번째 인물들의 좌절과 죽음을 바탕으로 세속적인 삶에서 출로를 얻는다. 이 같은 인물형상과 그들의 행위 및 이야기 순서에 따른 서사구조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인물들이 처한 변함없고 세속적인 현실은 전후 타이완 사회라 할 수 있다. 일본강점기에서 벗어난 타이완 사회는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전에는 불가능에 가까웠던 스스로 물질적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타이완의 경제 상황은 그들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더 나아가지 못하고 변화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간다. 그저 일상의 작은 파격 속에서 즐거움을 느낄 뿐이며, 그 자극이 물러간 뒤에 다시 무기력함에 빠진다. 물질적 욕망에 탐닉하는 이들은 동물적 삶을 반복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각성한 이의 좌절과 그로 인한 자기반성 혹은 부정의 양상 그리고 대중의 무료한 삶의 연속은 루쉰 소설의 영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중들이 처해있는 현실의 삶은 루쉰 당시와는 다른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천잉전의 작품에서 좌절로 인해 일부는 세속적인 삶의 기회를 얻는다. 어쩌면 이는 깨어있는 자들, 개혁가들의 이상의 무용함을 확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좌절로 출로를 얻은 이들의 삶도 일시적인 성공일 뿐이지 문제의 해결은 아니다. 평범한 사람들이나 출로를 얻은 이들이나 같은 공간, 같은 사회 속에서 변화 없는 일상을 살아가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 때, 오히려 자신의 죄악과 결함에 대한 인식의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 죄악과 결함의 공공연한 확인 속에서 천잉전은 앞에서 말했듯 “그 자신의 깊은 곳에 내재된 엄중한 절망과 자기파괴

를 피하려고 하였던”¹⁹⁾ 것은 아닐까? 이 확인 속에서 문제는 더욱 분명해지고, 이를 극복하려는 주체는 반성 속에서 오히려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정체성 과정은 국민성 개조 서사를 변형하는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4. 국민성 개조 서사와의 연관성과 차이

이들 작품에서는 정치적 탄압이나 긴장은 뚜렷이 보이지는 않는다. 물론 「시골 선생님」의 동란(국공내전)의 기억처럼 예들러 그 모습을 보이기 는 한다. 그러나 정치가 직접적으로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대신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물질적 욕망이다. 전후, 특히 국민당이 대륙에서 넘어 온 이후, 미국의 도래와 함께 타이완에는 본격적으로 서구 자본주의에 욕박하는 물질 발전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다. 물질적 삶에 대한 기대치는 높아지고, 많은 이들은 어떻게 하면 물질적 부를 쌓을 수 있을까 고민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조차 제대로 해결되지도 못하는 수준이다. 그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쁘다. 일상에서 생존하는 것 이외에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반면, 물질적 욕망에 반해 깨어있는 이들은 정치를 이야기하고 도덕을 이야기한다. 각성한 이들은 물질적 욕망과 도덕적 타락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타락을 극복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이 제기하는 이상이 힘겹게 살아가는 평범한 이들의 삶에 부합할 리 없다. 각성한 이들은 도리어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음과 타락에 빠져든다.

좌절과 죽음의 서사 속에서 각성한 주체는 ‘바꾸려하다 — 그러나 — 좌절한다’. 그러한 일련의 일들이 벌어지는 공간은 변화하지 않는다. 그

19) 陳映眞, 「後街」, 『我的弟弟康雄·陳映眞小說集1』(台北: 洪範書店, 2001), 18쪽.

래서 그들의 행위는 무가치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누군가의 좌절은 누군가에게 출로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서사구조 속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의미는 이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서사구조에서 필자는 우매한 민중에 대한 비판보다는 각성한 주체의 자각에 눈이 간다. 천잉전의 작품은 직접적으로 이상과 출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사구조의 유사성 속에서 자연스럽게 작가뿐 아니라 독자의 정체성의 확인이 이루어지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

각성한 이들과 우매한 대중이 등장하고 그들의 생각과 삶의 방법이 충돌하는 구도는 20세기 초 중국현대문학에서 국민성 개조의 서사를 환기시킨다. 국민성개조는 대중을 개혁의 실패의 원인으로 본다. 우매한 국민은 개혁가를 희생시키고, 그들의 피까지 요구한다. 각성한 이의 계몽을 수용하지 못하는 타락한 이들이 비판과 개조의 대상이 된다. 20세기 초반 대륙이 스스로의 근대를 기획해 가던 순간에 그들의 작업은 대중에 대한 비판과 개혁이었다. 이는 신화적 원형처럼, 중국 근대 서사구조의 하나로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물들 간의 갈등과 행위, 그리고 그 결과를 본다면 작품 속 서사는 과연 그러한 계몽적 비판의 재현인가를 회의하지 않을 수 없다.

천잉전 역시 당시 타이완의 현실에서 근대기획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지식인이었다. 전후 타이완 사회는 식민지 근대성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었지만 국민당의 계엄통치와 자본주의의 도래는 타이완인들의 근대기획과 그들의 정체성 확인에 혼란을 가져다주었다. 이 시기 천잉전이 읽은 『외침吶喊』은 그가 창작한 작품의 서사 구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 분명하다. 천잉전은 전후 다시금 폐쇄된 타이완 사회에서 루쉰의 작품 등을 통해 5·4의 고민과 방법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그것이 당시 타이완 현실에서도 의미 있음을 확인했다고 볼 수 있다.

그가 이 시기 구축한 서사구조는 문제의식의 측면에서 5·4의 고민과 방법을 재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개혁이 요구되는 사회 속에서 도덕적 타락과 우매한 민중이라는 현실을 깨달은 각성한 이의 존재, 그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주체에 대한 모색은 20세기 초 중국신문학이 가지고

있던 고민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중국신문학 속의 국민성개조의 서사는 천잉전으로 하여금 중국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는 길이기도 했다. 중국신문학의 경험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천잉전은 단순히 방법만을 빌려온 것이 아니라 중국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기도 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천잉전 작품 속 서사구조는 본래의 국민성개조 서사와의 차이점 역시 보여준다. 본래의 국민성개조 서사의 초점은 주로 우매한 대중에게 맞춰져 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과학적이고 미신에 휩싸인 습속을 증점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그것이 각성과 개혁의 실천에 장애물임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천잉전의 작품에서는 오히려 각성한 이들이 자신의 무기력과 죄악을 자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드러나고 있다. 물론 루쉰에게서도 근현대 전환기 옛 지식인의 수구성과 개혁 지식인의 무력함에 대한 자기비판을 읽을 수 있지만 이는 루쉰 특유의 사유방식과 연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천잉전의 작품에 나타나는 각성한 이들의 자기 인식과 부정은 타이완 지식인이 처해 있던 자기 정체성의 확립과 더 큰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개혁이 필요한 현실, 각성한 지식인, 우매한 민중이라는 국민성개조 서사의 일반적 구도는 일상을 바꾸려는 개혁가들과 그들의 계몽을 거부하는 민중의 대립을 토대로 한다. 천잉전 작품에서 이 같은 대립은 각성한 이 혹은 개혁가의 좌절 혹은 죽음으로 해소되는데, 그 죽음의 가장 큰 이유는 그들 자신의 부덕과 죄악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무료하고 타락한 일상을 바꾸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이 개혁을 시도한 이 자신의 부적합한 방법과 자신의 타락한 문화와 도덕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작품은 개혁가와 민중의 대립적 구도에서 개혁가 내면의 자아 반성으로 나아간다. 거절은 좌절로 이어지지만, 반성은 갱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천잉전 소설의 서사구조는 국민성개조 서사의 우매한 대중과 현실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개혁자 내면의 각성과 자기 부정을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것은 결국 자기 존재에 대한 재인식,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인으로 나아가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천잉전의 서사는 죽음과 좌절을 맞이하는 개혁자의 절망의 책임을 우매한 대중에게 돌리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계몽에 토대를 둔 국민성개조 서사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천잉전이 구축한 서사구조가 그려내는 각성자의 무력함과 자기의 부덕과 죄악에 대한 각성이 각성자의 좌절과 죽음의 원인이라는 사실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비록 작품에서 그 같은 자기각성의 결과는 죽음 혹은 좌절로 이어지지만 그 속에 내재하는 자기반성의 의미 역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반성은 자기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정립과도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국민당의 계엄통치 속에서 반공문학이 횡행하던 1950년대 타이완에서 천잉전이 기대하는 개혁과 밝은 미래라는 전망은 불투명한 것이었다. 계엄통치와 자본주의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던 타이완의 근대기획은 타이완인들이 기대하던 것과는 다른 것이었다. 선불리 다른 전망을 이야기하기 쉽지 않던 상황 속에서 국민당의 계엄통치가 보인 폭력성은 타이완을 강점했던 일본의 통치와 그리 다르지 않은 것이었다. 일본강점기에서 벗어난 타이완에 대륙의 내전을 위해 국민당이 타이완에서 젊은이를 징집하는 상황을 「시골 선생님」에서는 일본의 폭력성과 동일한 것으로 그린다.²⁰⁾ 이것은 국민당의 타이완 통치가 천잉전이 추구하는 이상과는 큰

20) 이듬해 봄 성내省内의 소동과 중국의 동란의 촉수가 이렇게 적막한 산촌에 까지 뻗쳐왔다. (중략) 이 때 교사 우진샹은 자신 안에서 점점 혼란과 몽롱을 느끼게 되었다. 그는 열심히 국내의 문학을 읽었다. 처음에 그는 현존하는 폐단과 문제를 통해 자신의 조국을 보지는 않았다. 과거 그는 중국의 우매함과 불안의 본질을 사색하는 데 마음을 기울였다. 그러나 지금 그는 이 우매함과 불안이 중국이 중국이 되는 이유라 생각하게 되었다. 게다가 이 이유로 인해, 그는 자신이 중국인이 되는 것에 대해 이유를 알 수 없는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다. (중략) 그는 혼탁하고 호탕한 강의 배들, 용이 잠자고 수염을 기른 신선이 사는 신비한 산들, 포장도로의 도시, 멋진 글자의 광고판을 단 도시, 병들고 곤궁하고 더러우며, 안분지족하고 우매한, 건방지고 따듯하며, 포용적이되 집착적인 중국인을 보는 듯했다. 이러한 감정 가운데 혈연적인 친밀감 말고도, 그는 거대하면서 애매한 비애를 느꼈다. 이러한 중국인! 그는 과거와 현재 국내의 동란을 생각하다 보니 민국 초년 러시아 군복을 입은 혁명 군관을 본 듯했다. 종이를 바른 듯한 군복과 군모를 입은 사병들, 봉화들, 쇠퇴. 이러한 동란조차 중국인이 중국인이 되는 이유였다. 이것은 비애이다. 그것은 몽롱하고 애매한 — 중국식의 — 비애이나, 어쨌든

괴리를 가짐을, 거부와 저항의 대상임을 의미한다. 또 다른 작품인 「사과 나무」 속 다음과 같은 묘사는 침입전이 이러한 역사를 지닌 타이완 사회를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자기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자 하는지를 은연중 드러내고 있다.

“말해 줘요. 사과가, 사과가 뭐죠?”

“사과 말이야?” 린우즈가 말했다. 그는 조금 당황스러웠다. “사과는 말이야? 아-”

그는 우울해졌다. 그는 폴 세잔의 정물에서 본 적이 있었다. 그러나 세잔을 그렸을 때는 이미 실물과 그것의 미는 분리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사과가 불명 레몬보다는 크고 참외보다는 작은, 감보다는 열으면서 더 고상한 붉은 색의 과일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맛은 추단할 수 없었다. 하지만, 무슨 상관인가? 그는 상심했다. 왜 그런지 알 수 없었다. 아마도 그 자신조차도 사과의 됴됨이를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

“사과 말이야?” 그는 말했다. 마음이 아파왔다. “사과가 뭔지 말해줄게. 사과는 바로...행복이야.”

그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자기 말이 이상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생각했다. 왜 아니야? 행복이지!

늘 일종의 비애였다. 그의 지식은 일종의 예술이 되었지만, 그의 사색은 미학이 되었지만, 그의 사회주의는 문학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의 애국적 열정만은 일종의 가족적, (중국식의) 혈연적 감정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략) 유치병은 그에게 극히 순후한 문학적 의미가 있었다. 그의 나태함, 어머니에 의지하는 태도, 그의 공상적 성격, 개혁의 열정 따위는 그에게는 꿈속 영웅주의의 일부분일 뿐이었다. 생각에 빠져들면서 우진상은 어쩔 수 없이 좌절해 갔다. (중략) 장밤의 다랭이논의 농민들은 순식간에 중국의 옛날과 이어져, 중국인의 또 다른 펜을 통해, 햇볕 아래에서 노동하고 살아가고 있었다.

(중략) 그들의 둔해 보이는 각반, 무기의 기름 냄새, 병사의 체취, 군대 식사 고유의 맛, 그 하나하나는 모두 전형적이다. 그는 그들에게서 수백 년 동안 반복되었던 중국의 전쟁을 보는 듯했다. 이 오래되고 이상한 중국이라니! 그는 혼자서 말했다.

(중략) 여름 저녁 백색의 투명한 달이 서산에 걸려 있었다. 눈에 물이 차 있었고 석양이 불타고 있었다. 곧 모내기할 계절이다. 파릇한 모종이 저녁 바람에 온화하고 예의바르게 흔들린다. 우진상은 담배를 피면서 몽롱한 가운데 귀향하기 전 수용소가 있던 남방의 저녁 안개를 떠올렸다. 복숭아빛 저녁 안개 속에서 그는 까닭 없이 중국의 칠층 보탑을 떠올렸다. 그래서 그는 다시 지도의 중국을 보았다. 어둠 속에서 그는 갑자기 이 늙고 게으르면서도 거만한 중국을 개혁하는 것이 비할 바 없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陳映眞, 『鄉村的老師』, 『我的弟弟康雄·陳映眞小說集1』(台北: 洪範書店, 2001), 37-40쪽.

(중략)

“우리의 사과나무는 열매가 맺혀야 해” 그는 말했다. 흥분이 그의 눈물샘을 자극했다. “열매가 맺혀야 한다고. 그 때가 되면 우리는 모두 사과 하나를 가질 수 있을 거야. 우리 자신의 사과 말이야. 우리가 필요로 하는 행복 말이야.”

(중략)

“내가 필요로 하는 행복은” 그가 말했다. “만물의 영혼을 볼 수 있는 눈 한 쌍이어야 해. 아, 나는 탁자 하나 의자 하나, 병 하나 주전자 하나의 영혼을 볼 거야. 나는 천뢰 자연 속에 숨은 정령을 볼 거야. 나는 육체에 갇힌 진실을 볼 거야. 그런 후 나는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어. 아!.....”

“너의 행복은” 그는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아이를 보고 말했다. “냄새 좋은 흰 쌀밥에 고기국물을 끼얹은 것이어야 하지”

“이것 모두 가능해. 우리의 사과가 맺히기만 한다면.”

“그때가 되면, 남자들도 주정을 부리지 않을 것이고, 너는 야만적이지 않을 거야. 그 때가 되면 어머니도 건강하고 아름다울 거야. 그때가 되면 아이들도 달콤한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고, 편안하고 따뜻한 품에 안길 수 있을 거야. 그때가 되면 우리의 집은 높고 아름다울 거야. 붉은 담에, 녹색 기와를 하고 있겠지. 그때가 되면, 노인들은 모두 안락의자를 가질 것이고, 그때가 되면, 너마주이 라오리(老李)의 눈병도 나을 거야.”

(중략)

린우즈 군 얼굴은 온통 눈물범벅이었다. 그러나 그는 즐거웠고, 기뻐했다.²¹⁾

1절에서 언급한 자오강의 분석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작품에서 사과는 린우즈가 추구하는 이상을 의미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과는 타이완에서 볼 수 없는, 대륙에서나 볼 수 있는 과일이다. 그 사과는 행복이라는 감정적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물질적 만족을 충족시켜주는 것이기도 하다. 감정적, 정신적 만족과 물질적 충족, 이는 당시 타이완 사회의 요구일 것이다. 작품에서 린우즈가 사과나무라고 말하는 것은 타이완에서 볼 수 있는 비스코피아(茄苳)였다. 그러므로 린우즈의 이상이 투영된 사과나무는 타이완의 현실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라 할 수 있다. 비록 린우즈의 이상이 착각에서 비롯되고 있지만, 그래서 현실을 바꿀 수는 없지만, 당시 타이완의 현실적 요구로부터 상상되는 이상의 하

21) 陳映眞, 「蘋果樹」, 『我的弟弟康雄·陳映眞小說集1』(台北: 洪範書店, 2001), 146-148쪽.

나가 무엇인지는 확인할 수 있다.

국민당 통치 하의 타이완 현실을 무료와 타락으로 표현한 천잉전이 타이완에 존재하지 않는 사과나무를 희망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사실은 그가 추구하던 이상과 희망이 무엇이었는지를 예측하게 한다. 작품에서 사과나무는 두 가지 현실적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보인다. 그 하나는 인용에서 아이가 원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물질적 문제의 해결이다. 대륙에서나 열리는 사과나무가 타이완에 필 때, ‘냄새 좋은 흰 쌀밥에 고기국물’, ‘달콤한 젓’, ‘붉은 담’, ‘녹색 기와’ 이런 물질적 요구가 해결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린우즈가 원하는 것으로 그려지는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이라 할 수 있다. 린우즈가 원하는 만물의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은 세상 모두에 깃든 정신과 영혼, 육체라는 껍데기에 갇혀 있는 그 내면의 진실을 볼 줄 아는 눈으로 그려진다. 아이와 린우즈의 대화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희망은 두 사람의 바람에만 그치지 않는다. 천잉전은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타이완 사회에 요구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바람은 생산력의 발전을 통한 물질적 욕망의 해결을 우선시 했고, 인민의 사상적 각성과 고양을 이야기했던 대륙의 사회주의에 대한 상과도 연관된다. 대륙에 존재하는 사과나무와 사과를 통해 대륙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고 있는 듯한 이 작품은, 린우즈가 실제로는 사과나무와 비스코피아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부각시킴으로써 이 같은 이상의 실체를 확정짓지는 않고 있다. 게다가 그것을 이야기한 린우즈는 실제로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허황된 꿈을 가지고 있는 림펜에 지나지 않으며, 심지어는 자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라오성차이의 미친 아내와 관계한다. 작품은 결국 계몽의 대상으로서 민중이 아닌 선각자의 도덕과 정신 역시 문제 삼고 있다.

린우즈가 이상을 투영한 사과나무가 대륙에서나 존재한다는 것과 그것이 타이완에서 결실 맺길 원하는 바람은 린우즈의 자기 정체성, 나아가 작가 천잉전의 자기 정체성 확인의 내용을 살필 수 있게 한다. 린우즈와 같은 인물을 통해 현실의 요구에 대한 응답 속에서 개혁자의 현실에 대한 무력감과 도덕적 자괴감을 읽어 낼 수 있다. 하지만 천잉전이 이러한

인물을 그려낸 것은 무력감과 자괴감으로 절망에 빠지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다시 한 번 「뒷골목」에서 밝힌 그의 의도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 그는 이러한 인물들을 그려냄으로써 오히려 절망을 벗어나려고 했다. 그것은 아마도, 이 드러냄이 반성으로, 그리고 갱신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계몽의 대상이 아닌 계몽자를 자처한 이들에 대한 비판과 반성은 이 시기 좌절과 죽음을 다룬 천잉전이 국민성 개조 서사를 변형한 의미가 아닐까?

5. 결

전후 주체적 발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타이완은 국민당에 의한 정치화의 과정에서 이를 상실하고 말았다. 천잉전은 정치적으로 일본을 대신한 국민당의 강력한 통치가 확고해지고, 경제적으로 자본주의의 발전이 점차 확장되던 시기 타이완 사회에 대한 목소리를 내왔다. 전후 일본이 나가면서 잠시 열렸던 타이완은 다시 닫힌 사회가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닫힌 것을 다시 여는 실천은 주체를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천잉전은 이를 대중에 대한 비판과 계몽이 아닌 자신과 같은 정신적으로 깨어있고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이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작업에서 시작했다. 그는 각성한 이의 이상과 개혁이 대중에 의해 거절당하는 절망적 상황에서 오히려 좌절한 이의 형상을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이를 극복하고자 했다. 근대를 기획하고 실현해야 하는 상황과 사람을 지배하려는 거대한 존재가 각축하거나 지배하는 상황은 5.4의 국민성 개조 서사가 배태된 상황과 유사하다. 천잉전은 계몽가와 우매한 군중의 서사를 원용하면서도 이것을 변형했다. 국민성 개조의 서사가 계몽의 대상인 대중의 우매함에 대한 비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는 이상을 제시하고 도덕을 바꾸려 한 개혁가들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었다.

우매한 대중에 대한 비판에 앞서 각성한 이들 자신의 원죄와도 같은 무력함과 부도덕과 비윤리에 주목했던 것이다. 이러한 자기 정체성의 확인은 이상의 제시보다는 이상을 제시하는 이들을 문제시함으로써 반성의 계기를 만들고 그럼으로써 갱신의 가능성을 열게 된다. 이것은 국민당의 정치적, 이념적 탄압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제 막 사회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자신과 같은 이들이 절망에 빠져들지 않으려는 몸부림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그의 문학 활동이 사회적 실천이 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인식과 자기 확인이 이후 그의 신념과 실천을 어떠한 방향으로 만들어 갔는지는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 陳映眞,『我的弟弟康雄·陳映眞小說集1』,台北:洪範書店,2001年.
- 趙剛,「從陳映眞小說看1960年代台灣知識分子的“離開”情結」,『天涯』2016年2期.
- 趙剛,「蘋果樹:書寫是爲了克服絕望」,『文藝爭鳴』2017年2期.
- 劉奎,「陳映眞與理想主義之困」,『藝術評論』2017年3期.
- 譚君,「“理想主義”思想方法的跨越性批判」,『蘇州教育學院學報』第36卷第5期.
- 朱文斌·岳寒飛,「在虛無中存在」,『文藝爭鳴』2017年3期.
- 張楠,「扭曲的鏡子——試論陳映眞小說中的“我”」,『牡丹』2018年17期.
- 蕭寶鳳,「“歷史中間物”意識與烏托邦精神」,『台聲』2019年20期.
- 李娜,「試析1950-1960年代台灣青年的“虛無”,重新理解“現代主義與左翼”」,『文藝理論與批評』2017年6期.
- 鄭鴻生,「陳映眞與台灣的“六十年代”」,『陳映眞思想與文學』下,台北:台灣社會研究,2011.

延光錫, 「陳映眞 문학사상이 분단 한국에 주는 참조적 의의」, 『중국현대문학』 제80호,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17.

양태근, 「사라지는 것과 사라지지 않는 것」, 『중국현대문학』 제86호,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18.

陳芳明, 고운선 외 역, 『타이완신문학사』, 서울: 학고방, 2019.

로이스 타이슨, 윤동구 역, 『비평이론의 모든 것』, 서울: 엘피, 2012.

【Abstract】

The Meaning of Frustration and Despair in the Early Novels of Chen Yingzhen:

Through Analysis of Narrative Structure

Lee, Hyun Bok

Taiwan, which had an opportunity for post-war self-development, lost it in the process of politicization by the National Party. Chen Yingzhen spoke out on Taiwanese society at a time when the strong rule of the Kuomintang politically replaced Japan and the economic development of capitalism gradually expanded. Taiwan, which had been opened for a while as the post-war Japan went out, became a closed society again, and in this situation, the practice of reopening the closed was compelled to start with confirming the subject. Chen Yingzhen started this not with criticism and enlightenment of the public, but with the work of confirming the identity of those who are mentally awake and want to reform Taiwan. In a desperate situation where the awakened person's ideals and reforms were rejected by the public, he tried to overcome this by revealing the image of a rather frustrated person. The situation in which modernity must be planned and realized,

and the situation in which a huge entity who tries to dominate people competes or dominates is similar to the situation in which the narrative of reconstruction of nationality in 5.4 was born. Chen Yingzhen transformed this while using the narrative of the enlightenmentist and the foolish crowd. While the narrative of the transformation of nationality focused on the criticism of the ignorance of the public, he presented the ideal and revealed the problems of reformers who tried to change morality. Prior to the criticism of the ignorant public, the awakened people paid attention to their own original sin-like helplessness, immorality, and unethicity. This confirmation of self-identity creates an opportunity for reflection by questioning those who present the ideal rather than the presentation of the ideal, thereby opening the possibility of renewal. This can be seen as a struggle to avoid falling into despair by those who have just started to speak out in society in a situation where the political and ideological repression of the National Party is intensifying. It will be necessary to reconsider the direction in which his convictions and practices were made after recognition and self-confirmation of his situation during this period.

Key words: Chen Yingzhen, reform, ideal, narrative structure, subject, frustration, despair, immorality, self-reflection, ignorance, criticism

접수일: 1월 4일, 심사기간: 1월 4일~1월 13일, 게재 확정일: 1월 14일
--